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 발달단계별 차이를 중심으로 -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 of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and Self-esteem on Body Image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김정민*

석사 이세진**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Min

Master Course : Yi, Se-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 of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and self-esteem on body image. Participants were 315 elementary school, 305 middle school students, 310 high school students and 346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Cronbach's α ,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self-esteem and body image differed by grade and gender. 2) Peers, self-esteem, BMI and mass media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dy image. Mass media, BMI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body image. Self-esteem, peers, BMI, gender and mass media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high school students' body image. Self-esteem, mass media and BMI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body image.

▲주요어(Key Words) : 신체상(body image),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자아존중감(self-esteem)

I. 서론

신체상(body image)은 개인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갖는 태도 및 느낌으로 정의된다(O'Brien, 1980). 최근 보건복지부(2004)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상체중의 여성 56.8%가 자신

의 체형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66.1%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마른 체형에 대한 지나친 욕구,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염려 등을 포함한 신체상의 문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신체상의 문제는 우울, 불안,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Brausch & Gutierrez, 2009; Ivarsson et al., 2006; Jones & Buckingham, 2005; Kaur et al., 2003; Kostanski & Gullone, 1998;

* 주저자 : 김정민 (E-mail : jmkim122@mju.ac.kr)

** 교신저자 : 이세진 (E-mail : candle1204@hanmail.net)

Polivy & Herman, 2004; Yabing et al., 2006).

최근 몇 년간 신체상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 중 상당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김정민 · 박경미, 2008; 김정민 · 한근희, 2008; 이해련 · 김정민, 2009; Craig et al., 2007; Dohnt & Tiggemann, 2006; Keery et al., 2005; Posavac et al., 2001; Ricciardelli et al., 2003; Stanford & McCabe, 2005; Tiggemann & McGill, 2004). 구체적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를 포함한 주요 양육자의 신체에 대한 태도는 그 자녀가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Zalilah et al., 2003). 부모가 체중 혹은 체형에 관심이 많거나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는 경우, 그 자녀는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쉽다(Ricciardelli et al., 2003). 또한 부모에 의한 외모 및 신체에 대한 놀림은 신체불만족, 부정적 정서, 섭식장애 등과 같은 섭식문제를 초래한다(이해련 · 김정민, 2009; Keery et al., 2005). 둘째, 주변의 또래 혹은 또래집단과의 비교는 개인의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며(Craig et al., 2007; Dohnt & Tiggemann, 2006; Huon et al., 2002), 또래에 의한 외모 관련 비난이 개인의 신체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hane & Pope, 2001; Smolak, 2004). 셋째,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 혹은 신체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신체와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 한근희, 2008; Posavac et al., 2001; Stanford & McCabe, 2005; Tiggemann & McGill, 2004). 특히 최근 대중매체의 활용이 과속화됨에 따라 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신체상에 관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 가장 빈번한 연구 주제로 관심을 받아왔다.

요약해 볼 때, 부모, 또래, 대중매체 등 개인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중매체의 영향에 관한 것들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소수에 그치는데다(이해련 · 김정민, 2009; Keery et al., 2004; Lane, 2008; McCabe & Ricciardelli, 2001; Ricciardelli et al., 2003), 그나마 연구 대상이 여자 청소년 혹은 남자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의 발달 단계나 성별에 따라 이들 요인들과 신체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부모 혹은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기~성인기에 이르는 각 발달 단계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Clark & Tiggemann, 2007; McCabe & Ricciardelli, 2005).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의 영향 또한 각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거나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체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섭식문제와 연계하여 수행된 것들로 거의 대부분 여자 청소년 및 여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녀 아동, 남자 청소년 및 성인의 신체상에 관한 것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Cohane & Pope, 2001; Ricciardelli et al., 2003). 더욱이 최근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마른 것'(thinness) 대신 '근육질'(muscularity)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Smolak, 2004). 따라서 아동기~성인기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 단계의 남녀를 대상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더불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물학적 요인들 가운데 신체질량지수를 추가하였다. 신체질량지수는 신장과 체중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 신체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신체상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체질량지수는 신체불만족, 외모 관련 대중매체에 대한 반응, 섭식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 한근희, 2008; Gupta et al., 2001; Hwang, 2004; Shin & Paik, 2003). 그러나 이들 연구들 또한 모두 여자 청소년 혹은 여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질량지수가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요인 외에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였다. 신체상은 외모에 대한 관심 외에도 외모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를 포함하므로(Cash, 1990), 전반적인 자기 평가인 자아존중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몇몇 선행 연구들은 부정적인 신체상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braham & Suzanne, 2003; Grossbard et al., 2009; O'dea & Jennifer, 2000; Shroff & Thompson, 2006). 그러나 이들 연구들 역시 여자 청소년 혹은 여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의 발달적 변화를 보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신체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 청소년 및 여자 성인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요인들, 특히 대중매체의 영향에 치중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그 외 신체질량지수나 자아존중감 같은 변인들과 신체상과의 관계를 각기 따로 살펴본 것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부모, 또래, 대중매체), 생물학적 요인(신체질량지수), 심리 내적 요인(자아존중감)들의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 발달 단계에 따라 이들 요인들이 신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남녀 초등학교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발달단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발달단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초등학교 5·6학년생, 중학교 2·3학년생, 고등학교 2·3학년생, 대학교 2·3·4학년생 총 5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문항의 이해와 답변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비조사용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7월 10일~9월 8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생, 중학교 2·3학년생, 고등학교 2·3학년생, 대학교 2·3·4학년생 총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 및 연구자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으며, 담임교사 및 연구자의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총 1,345부가 배부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1,276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소재 3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3개 중학교의 2·3학년생, 3개 고등학교의 2·3학년생, 7개 대학교의 2·3·4학년생 총 1,34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1,276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학년과 성별 및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 범위는 각 연령별 지표에 따라 BMI<16.3-17.9는 저체중, 16.3-17.9≤BMI≤24.26은 정상체중, 24.26≤BMI≤28.1-31은 과체중, 28.1-31≤BMI는 비만으로 분류하였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정상체중 집단이 1,053명(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 집단이 110명(8.6%), 저체중 집단이 73명(5.7%), 비만 집단이 40명(3.1%)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8년 6월 27일~29일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 연구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척도

Keery 등(2004)이 제작한 척도를 이해련(2007)이 컴퓨터와 잡지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보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아동기~성인기 초기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문항 이해의 어려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총 36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부모(예, '부모님은 몸무게나 다이어트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신다' 등), 또래(예, '내 친구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등), 대중매체(예, 'TV, 컴퓨터, 잡지를 보면 외모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등)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성 별	남	622(48.7)
	여	654(51.3)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149(11.7)
	초등학교 6학년	166(13.0)
	중학교 2학년	155(12.1)
	중학교 3학년	150(11.8)
	고등학교 2학년	155(12.1)
	고등학교 3학년	155(12.1)
	대학교 2학년	79(6.2)
	대학교 3학년	119(9.3)
신체질량지수	저체중 집단	73(5.7)
	정상체중 집단	1053(82.5)
	과체중 집단	110(8.6)
	비만 집단	40(3.1)

2)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Must et al., 1991)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Kg/m²).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Brook-Gunn et al., 1986; Pritchard et al., 1997; Thompson et al., 1995).

3)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제작한 척도를 이영자(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아동기~성인기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이자영 등, 2009; 정희욱, 2003; Mimura & Griffiths, 2007; Wylie, 1989). 총 10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예,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문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4) 신체상 척도

Cash(1990)가 제작한 척도를 조선명(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외모지향성(예,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등), 외모평가(예,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등), 신체만족도(예, '나는 내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등)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wo-way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의 차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초등학교 M(SD)		중학교 M(SD)		고등학교 M(SD)		대학교 M(SD)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하 위 변 인	부모	34.11 (10.78)	36.48 (11.63)	37.17 (9.67)	37.93 (11.14)	37.29 (10.52)	43.19 (12.40)	39.78 (10.44)	42.12 (13.03)
	또래	25.80 (8.58)	30.49 (9.11)	29.51 (7.99)	39.88 (9.22)	34.18 (7.92)	42.90 (7.36)	33.96 (7.92)	43.65 (8.24)
	대중 매체	14.05 (5.84)	17.42 (6.40)	17.81 (5.65)	21.67 (6.84)	20.78 (5.41)	25.92 (4.54)	22.06 (5.13)	26.88 (5.1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73.96 (20.86)	84.39 (21.82)	84.49 (17.38)	99.48 (20.44)	92.25 (17.82)	112.02 (18.18)	95.81 (18.99)	112.66 (20.02)
신체질량지수		19.16 (3.26)	18.04 (2.76)	20.44 (3.09)	20.31 (2.37)	22.11 (3.25)	20.97 (2.11)	22.19 (2.37)	20.34 (2.04)
자아존중감		27.17 (5.08)	27.87 (5.20)	28.89 (4.82)	29.06 (5.23)	29.44 (5.09)	28.25 (4.86)	31.59 (4.11)	29.88 (4.85)
하 위 변 인	외모 지향성	28.87 (8.99)	36.16 (8.83)	34.61 (8.14)	40.21 (8.94)	38.12 (7.78)	41.74 (6.84)	38.31 (5.93)	43.22 (6.57)
	외모 평가	10.87 (2.82)	11.49 (3.14)	12.51 (3.63)	11.76 (3.56)	13.50 (4.06)	12.92 (3.04)	15.67 (3.29)	14.44 (3.34)
	신체 만족도	28.89 (5.85)	28.11 (5.90)	27.44 (5.69)	24.16 (5.91)	26.90 (5.38)	25.18 (5.11)	29.49 (5.60)	26.86 (5.05)
	신체상	68.62 (12.34)	75.76 (12.01)	74.57 (12.59)	76.13 (11.88)	78.53 (12.55)	79.84 (10.06)	83.46 (10.64)	84.52 (9.27)

<표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인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 모	학 년	6517.69	3	2172.56	17.05***
	성 별	2563.11	1	2563.11	20.12***
	성별*학년	1094.61	3	364.87	2.86*
	오 차	161530.40	1268	127.39	
하 위 변 인	학 년	23676.17	3	7892.06	114.24***
	성 별	22278.41	1	22278.41	322.48***
	성별*학년	1531.09	3	510.36	7.39***
	오 차	87600.29	1268	69.09	
대 중 매 체	학 년	15063.74	3	5021.25	156.96***
	성 별	5874.31	1	5874.31	183.63***
	성별*학년	160.23	3	53.41	1.67
	오 차	40563.02	1268	31.99	
외 모 에 대 한 사 회 문 화 적 요 인	학 년	126532.50	3	42177.51	110.68***
	성 별	76469.26	1	76469.26	200.67***
	성별*학년	3608.50	3	1202.83	3.16*
	오 차	483189.40	1268	381.06	
신 체 질 량 지 수	학 년	1676.16	3	588.72	77.95***
	성 별	358.77	1	358.77	50.05***
	성별*학년	120.10	3	40.03	5.59**
	오 차	9088.64	1268	7.17	
자 아 존 중 감	학 년	1730.08	3	576.69	23.94***
	성 별	81.50	1	81.50	3.38
	성별*학년	314.06	3	104.69	4.35**
	오 차	30551.41	1268	24.09	
외 모 지 향 성	학 년	13261.37	3	4420.46	72.80***
	성 별	9117.69	1	9117.69	150.15***
	성별*학년	551.78	3	183.93	3.03*
	오 차	76996.27	1268	60.72	
하 위 변 인	학 년	2737.39	3	912.46	80.04***
	성 별	76.01	1	76.01	6.67*
	성별*학년	149.58	3	49.86	4.37**
	오 차	14454.73	1268	11.40	
신 체 만 족 도	집 단	1866.45	3	622.15	20.11***
	성 별	1403.37	1	1403.37	45.37***
	성별*집단	278.90	3	92.97	3.01*
	오 차	39226.13	1268	30.94	
신 체 상	집 단	25561.48	3	8520.49	65.24***
	성 별	2431.16	1	2431.16	18.62***
	성별*집단	2026.78	3	675.24	5.17**
	오 차	165596.90	1268	130.60	

*p<.05, **p<.01, ***p<.001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차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학년(F=110.68 p<.001)과 성별(F=200.67, p<.001)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3.16,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고등학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대학생) 꾸준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증가하나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컸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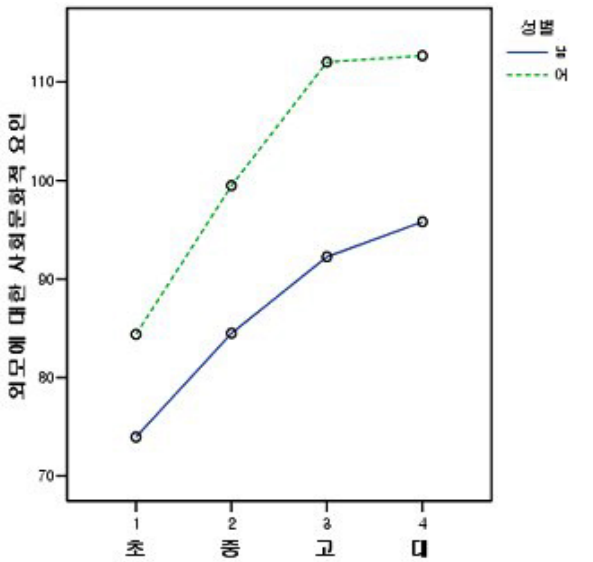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의 차이
 신체질량지수는 학년(F=77.95, p<.001)과 성별(F=50.05, p<.001)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5.59,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대학생) 남학생의 신체질량지수는 계속하여 증가한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고등학생) 여학생의 신체질량지수는 증가를 보이다 대학생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중학교 시기에 점차 감소하여 중학교 시기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대학교 시기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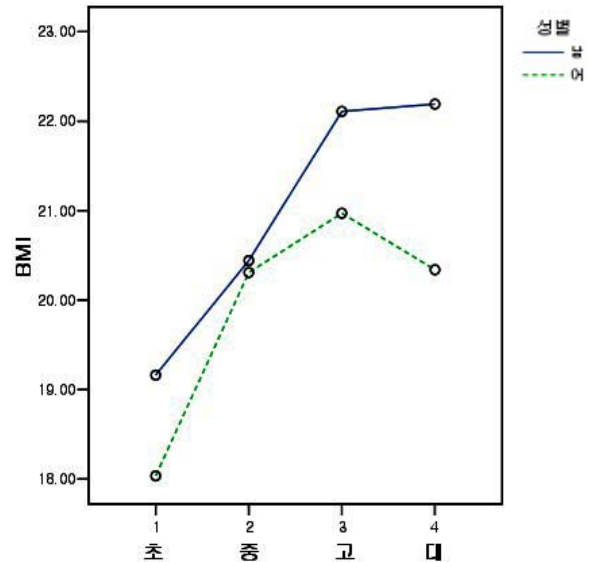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자아존중감은 학년($F=23.94, p<.001$)에 따른 주효과와 학년

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4.35,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대학생)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계속하여 증가한 반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중학교 시기에 증가하다 중학교~고등학교 시기에 점차 감소를 보였으며 고등학교~대학교 시기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시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중학교~대학교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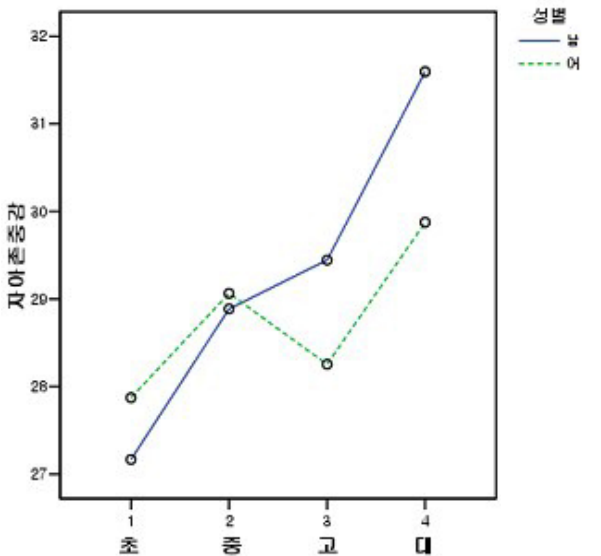
4)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상의 차이
 신체상은 학년($F=65.24, p<.001$)과 성별($F=18.62, p<.001$)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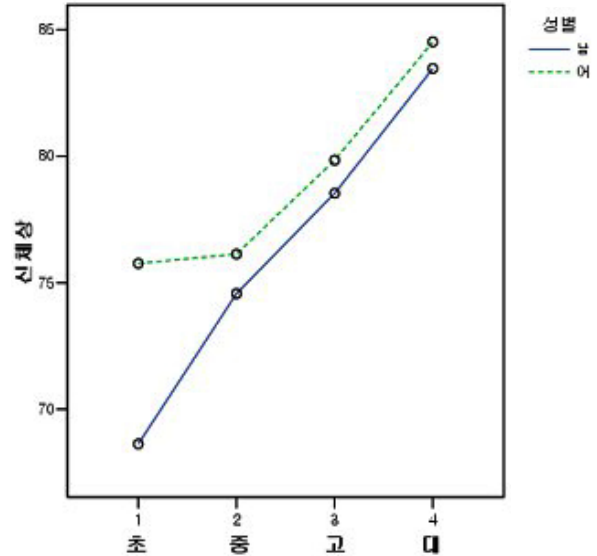
<그림 1>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그림 2>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신체질량지수



<그림 3>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자아존중감



<그림 4>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신체상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초등학생~대학생) 신체상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상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감소하였다(그림 4 참조).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신체상을 종속변수로, 각 학년별로 상관분석에서 신체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또한 앞서 신체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54-1.00로 모두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는 1.00-1.86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감이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래($\beta=.49$), 자아존중감($\beta=.30$), 신체질량지수($\beta=-.23$), 대중매체($\beta=.28$)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가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4%로 나타났으며($F=98.10, p<.001$), 자아존중감이 추가되어 9%가 증가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5.87, p<.001$). 이에 신체질량지수가 추가되어 5%가 증가한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3.05, p<.001$), 다시 대중매체가 추가되어 5%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43%였다($F=57.80,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또래($\beta=.65$), 대중매체($\beta=.36$), 성별($\beta=-.19$), 부모($\beta=.11$)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beta=.38$), 신체질량지수($\beta=-.31$), 또래($\beta=.19$)의 순으로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beta=.37$), 부모($\beta=-.25$), 신체질량지수($\beta=-.16$), 성별($\beta=.11$)의 순으로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감이 중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대중매체($\beta=.35$), 신체질량지수($\beta=-.33$), 자아존중감($\beta=.26$)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가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로 나타났으며($F=41.55,$

$p<.001$), 신체질량지수가 추가되어 11%가 증가한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4.15, p<.001$). 이에 자아존중감이 추가되어 6%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29%였다($F=41.72,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중매체($\beta=.60$), 또래($\beta=.19$)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beta=.43$), 신체질량지수($\beta=-.29$), 성별($\beta=.12$)의 순으로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beta=.35$), 신체질량지수($\beta=-.30$), 성별($\beta=.29$), 대중매체($\beta=.17$)의 순으로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감이 고등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자아존중감($\beta=.34$), 또래($\beta=.33$), 신체질량지수($\beta=-.21$), 성별($\beta=.15$), 대중매체($\beta=.18$)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로 나타났으며($F=40.79, p<.001$), 또래가 추가되어 11%가 증가한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5.00, p<.001$). 이에 신체질량지수가 추가되어 4%가 증가한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8.14, p<.001$), 다시 성별이 추가되어 2%가 증가한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86, p<.001$). 마지막으로 대중매체가 추가되어 2%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31%였다($F=26.83,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또래($\beta=.54$), 대중매체($\beta=.30$)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beta=.46$), 신체질량지수($\beta=-.23$)의 순으로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beta=.41$), 신체질량지수($\beta=-.28$), 성별($\beta=.18$), 부모($\beta=-.14$)의 순으로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 존중감이 대학생의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자아존중감($\beta=.31$), 대중매체($\beta=.21$), 신체질량지수($\beta=-.18$)의 순으로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0%로 나타났으며($F=36.48, p<.001$), 대중매체가 추가되어 4%가 증가한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7.93, p<.001$). 이에 신체질량지수가 추가되어 3%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17%였다($F=23.76, p<.001$).

신체상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중매체($\beta=.57$), 성별($\beta=-.15$)의 순으로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beta=.39$), 성별($\beta=.11$)의 순으로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beta=.46$), 대중매체($\beta=-.25$), 신체질량지수($\beta=-.16$), 성별($\beta=.19$)의 순으로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 변인	B	β	R ²	ΔR^2	F	
초 등 학 생	외모 지향성	1 또 래	.68	.65***	.42		223.83***	
		2 대중매체	.54	.36***	.50	.08	154.27***	
		3 성 별	-3.68	-.19***	.53	.03	117.24***	
		4 부 모	.09	.11*	.54	.01	90.60***	
	외모 평가	1 자아존중감	.22	.38***	.15		53.32***	
		2 신체질량지수	-.30	-.31***	.24	.09	49.01***	
		3 또 래	.06	.19***	.27	.03	39.21***	
	신체 만족도	1 자아존중감	.42	.37***	.14		49.84***	
		2 부 모	-.13	-.25***	.20	.06	38.73***	
		3 신체질량지수	-.31	-.16***	.22	.02	29.55***	
		4 성 별	1.24	.11*	.23	.01	23.44***	
	신체상	1 또 래	.67	.49***	.24		98.10***	
		2 자아존중감	.73	.30***	.33	.09	75.87***	
		3 신체질량지수	-.94	-.23***	.38	.05	63.05***	
		4 대중매체	.57	.28***	.43	.05	57.80***	
	중 학 생	외모 지향성	1 대중매체	.82	.60***	.36		170.99***
2 또 래			.17	.19**	.39	.02	94.33***	
외모 평가		1 자아존중감	.31	.43***	.19		69.99***	
		2 신체질량지수	-.38	-.29***	.27	.08	56.39***	
		3 성 별	.86	.12*	.29	.02	40.19***	
신체 만족도		1 자아존중감	.42	.35***	.12		42.34***	
		2 신체질량지수	-.66	-.30***	.21	.09	40.76***	
		3 성 별	3.44	.29***	.29	.08	41.86***	
		4 대중매체	-.15	-.17**	.32	.03	35.16***	
신체상		1 대중매체	.65	.35***	.12		41.55***	
		2 신체질량지수	-1.45	-.33***	.23	.11	44.15***	
		3 자아존중감	.64	.26***	.29	.06	41.72***	
고 등 학 생		외모 지향성	1 또 래	.47	.54***	.30		129.21***
			2 대중매체	.40	.30***	.35	.05	82.57***
		외모 평가	1 자아존중감	.33	.46***	.21		81.66***
			2 신체질량지수	-.30	-.23***	.26	.05	54.59***
	신체 만족도	1 자아존중감	.43	.41***	.17		61.79***	
		2 신체질량지수	-.54	-.28***	.25	.08	50.31***	
		3 성 별	1.95	.18***	.28	.03	39.43***	
		4 부 모	-.06	-.14**	.30	.02	31.67***	
	신체상	1 자아존중감	.78	.34***	.12		40.79***	
		2 또 래	.43	.33***	.23	.11	45.00***	
		3 신체질량지수	-.87	-.21***	.27	.04	38.14***	
		4 성 별	3.41	.15***	.29	.02	30.86***	
		5 대중매체	.37	.18**	.31	.02	26.83***	
	대 학 생	외모 지향성	1 대중매체	.67	.57***	.32		163.15***
			2 성 별	-2.05	-.15*	.34	.02	88.71***
		외모 평가	1 자아존중감	.29	.39***	.15		62.65***
2 성 별			.76	.11***	.17	.02	34.26***	
신체 만족도		1 자아존중감	.56	.46***	.22		94.40***	
		2 대중매체	-.24	-.25***	.27	.05	64.46***	
		3 신체질량지수	-.36	-.16**	.30	.03	48.38***	
		4 성 별	2.04	.19**	.32	.02	40.21***	
신체상		1 자아존중감	.67	.31***	.10		36.48***	
		2 대중매체	.38	.21***	.14	.04	27.93***	
		3 신체질량지수	-.75	-.18***	.17	.03	23.76***	

note. 성별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발달적 단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과 성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고등학생) 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대학생) 부모, 또래, 대중매체의 영향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 이후 부모, 또래, 대중매체의 영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기준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들이므로 외모 관련 정보, 압력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준거들을 제공하는 주체들인 부모, 또래, 및 대중매체 등은 성인 연령층과 비슷한 대상에게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더 많은 요구와 기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준거를 수용하는 대상들 또한 연령층에 따라 이러한 준거들을 자신의 것으로 더 혹은 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예, '외모 관련 속성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우 더욱 엄격하고 빈번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높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러한 기준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쉬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기준을 쉽게 내면화한다는 Richins(1991)의 주장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질량지수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고등학생)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신체질량지수는 초기 청소년기에 남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청소년기 후기에 접어들면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고등학생) 신체질량지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시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신체질량지수는 청소년 후기에 들어 점차 감소함으로써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질량지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통계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8)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신체상의 경우 하위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대학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만족도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모지향성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초등학생~대학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외모평가는 초등학교 시기를 제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청소년기에 들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청소년기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구체적인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해 만족을 나타냈다. 즉, 외모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추구,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자신의 외모 혹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기에 현저히 감소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성인 모델 위주로 한 신체상 기준과의 부적절한 비교,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사회적 특성,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증가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또래,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대중매체는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또래가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또래 집단의 영향은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신체 성장 및 발육의 가속화, 사춘기 연령의 저하 등으로 초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는 또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다른 발달 단계들과는 달리 성별과 부모가 외모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청소년기에 비해 아동기에는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며, 아직 사회적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의 영향에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신체질량지수 또한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장이나 체중 등 객관적인 신체적 조건보다 전반적인 자기 평가에 의해 자신의 외모평가 및 신체만족도가 결정지어짐을 가리킨다. 이는 신체상이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더욱 지지한다. 더욱이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쳐 대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왜곡된 외모평가, 낮은 신체만족도, 나아가 병리적인 섭식문제를 다루는 임상 장면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 섭식장애의 장애 예측 요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섭식장애의 발병

전조를 아동기에서 점검해 미리 스크리닝(screening)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중매체,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은 중학생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TV, 컴퓨터,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가 외부 매체를 통한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 연구(Hargreaves & Tiggemann, 2004)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와 관련된 이상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젊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으나 최근 그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Tiggemann & Mcgrill, 2004), 청소년 초기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아동기의 초등학생들에 비해 대중매체의 모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제시된 기준을 수용하기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주위의 또래 뿐 아니라 매체를 통한 비교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발달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은 외모 평가와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든 발달 단계(초등학생~대학생)에서 성별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섭식장애가 뚜렷한 성차를 보이는 것(Wittchen & Jacobi, 2005)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넷째, 자아존중감, 또래, 신체질량지수, 성별, 대중매체는 고등학생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또래가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중기~말기의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에 비해 매체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되었거나, 혹은 대학 입시의 부담으로 인해 TV나 잡지 등 매체 활용 시간이 감소하여 주변의 타인들, 즉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집단과의 비교가 더 용이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대학생의 경우 다시 대중매체가 또래를 제치고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등장한 것을 볼 때 납득할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청소년들은 외모 관리에 관한 정보를 또래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다고 보고한 통계 자료(한국청소년개발원, 2000)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지지한다. 한편, 외모 평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다른 발달 단계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외모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외모와 관련한 부모의 간섭이나 언급이 자녀의 신체만족도에 역효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 대중매체, 신체질량지수는 대학생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는 외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성인기에 들어서 매체가 제공하는 모델들에 대한 동일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다, 청소년기에 비해 활동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또래 집단의 결속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다른 발달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이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다른 발달 단계들과는 달리 신체질량지수가 외모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신체 기준이 점점 더 마른 체형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Wiseman et al., 1992), 과체중군 뿐 아니라 정상체중군 혹은 저체중군의 경우에도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군 간의 차이는 외모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실제 한 선행 연구(김정민·한근희, 2008)에서는 섭식 태도의 문제가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다른 발달 단계들과의 차이점은 성별이 외모지향성, 외모평가 및 신체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초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상 지각에 뚜렷한 성차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섭식문제의 성차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들은 특정 발달 시기에 따라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일차적 선별, 왜곡된 신체상의 예방, 나아가 섭식문제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표집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장과 체중 수치는 실제 측정 수치가 아닌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오차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의 성격을 띤 것으로 추후 대표성을 갖는 표집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가 실시된다면 발달적 변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기제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정민·박경미 (2008). 여고생의 섭식신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65-77.
- 김정민·한근희 (2008).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신체질량지수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73-83.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청소년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연보. 2008. 5. 2.
- 보건복지부(2004). 청소년들의 외모인식과 건강수준 실태조사. 여성정책 담당관실. 2004. 4. 7.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본인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자영 · 남숙경 · 이미경 · 이지희 · 이상민(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혜련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충동성 및 완벽주의가 여고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 · 김정민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충동성 및 완벽주의가 여고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29, 39-51.
- 정희욱(2003). 초 · 중 ·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0(4), 443-458.
-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braham, & Suzanne F.(2003). Dieting, body weight,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young women: Doctors' dilemmas.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8(2), 607-611.
- Brausch, A. M., & Gutierrez, P. M.(2009). The role of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as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1), 58-71.
- Brooks-Gunn, J., Warren, M. P., & Ross, J. T.(1986). The effect of cycle phase on the performance of adolescent swimmers. *Physician and Sports Medicine*, 14(3), 182-192.
- Cash, T. F.(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Tomson, J.K.), Pergamon Press.
- Cohane, G. H., & Pope, H. G., Jr.(2001). Body image in boy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 373-379.
- Clark, L., & Tiggemann, M.(2007). Sociocultural influences and body image in 9 to 12-year-old girls: The role of appearance schema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76-86.
- Craig, A. B., Martz, D. M., & Bazzini, D. G.(2007). Peer pressure to "fat talk": Does audience type influence how women portray their body image?. *Eating Behaviors: an International Journal*, 8(2), 244-250.
- Dohnt, H. K., & Tiggemann, M.(2006). Body image concerns in young girls: The role of peers and media prior to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2), 135-145.
- Grossbard, J. R., & Lee, C. M., & Neighbors, C.(2009). Body image concerns and contingent self-esteem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Sex Roles*, 60(3/4), 198-207.
- Gupta, M. A., Chaturvedi, S. K., Chandrana, P. C., & John-son, A. M.(2001). Weight-related body image concerns among 18-24-year-old women in canada and india: An empirical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0, 193-198.
- Hargreaves, D. A., & Tiggemann, M.(2004). Idealized media images and adolescent body image: "comparing" boys and girls. *Body Image*, 1(4), 351-361.
- Huon, G. H., Pirra, T., Hayne, A., & Strong, K. G.(2002). Assessing body and eating peer-focused comparisons: The dieting peer competitiveness scale. *Eur. Eat. Disorders Rev*, 10, 428-446.
- Hwang, Y. Y.(2004). A study on obese female college students' weight control experience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4), 293-300.
- Ivarsson, T., Svalander, P., Litlere, O., & Nevenon, L.(2006). Weight concerns, body image, depression and anxiety in Swedish adolescents. *Eating Behaviors*, 17(2), 161-175.
- Jones, A. M., & Buckingham, J. T.(2005).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n women's body ima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8), 1164-1187.
- Kaur, R., Singh, A. K., & Javed, A.(2003). Body image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Clinical Studies*, 19(1), 51-56.
- Keery, H., Boutelle, K., Berg, P., & Thompson, J. K.(2005). "The impact of appearance-related teasing by family memb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 120-127.
- Keery, H., Van den Berg, P., & Thompson, J. K. (2004). An evaluation of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dissatisfaction and eating disturbance with adolescent girls. *Body Image*, 1, 237-251.
- Kostanski, Marion., & Gullone, E.(1998).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2), 255-262.
- Lane, M. M.(2008). Parent, peer, and media influence on body

- images of caucasian girls ages 9 to 11 years old.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8(9), 116.
- McCabe, M. P., & Ricciardelli, L. A.(2001). Parent, peer, and media influences on body image and strategies to both increase and decrease body size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Adolescence*, (36)summer, 142, 225-240.
- McCabe, M. P., & Ricciardelli, L. A.(2005). A prospective study of pressures from parents, peers, and the media on extreme weight change behaviors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5), 653-668.
- Mimura, C., & Griffiths, P.(2007). A Japanese vers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Translation and equivalence assessmen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2(5), 589-594.
- Must, A., Dallal, G., & Dietz, W.(1991). Reference data for obesity: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wt/ht²) and triceps skinfold thicknes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3, 839-846.
- O'Brien, J.(1980). Body image, mirror, why me?. *Nursing Mirror*, 150(17), 36-37.
- O'Dea, & Jennifer A.(2000). Improving the body image,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of you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 new educational approach that focuses on self-estee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1), 43-57.
- Polivy, J., & Herman, C. P.(2004). Sociocultural idealization of thin female body shapes: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6.
- Posavac, H. D., Posavac, S. S., & Weigel, R. G.(2001). Reducing the impact of media images on women at risk for body image disturbance: three targeted interven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24-340.
- Pritchard, M. E., King, S. L., & Czajka-Narins, D. M. (1997). *Adolescent Body mass indices and Self-perception*. *Adolescence*, 32, 863-880.
- Richins, M. L.(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zed images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71-83.
- Ricciardelli, L. A., McCabe, M. P., Holt, K. E., & Finemore, J.(2003). "A bio psycho social model for understanding body image and body change strategies among childre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75-495.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H. S., & Paik, S. N.(2003).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college femal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3(3), 331-338.
- Shroff, H., & Thompson, J. K.(2006). Peer influences, body-image dissatisfaction, eating dysfun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533-551.
- Smolak, L.(2004). Body imag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here do we go from here?. *Body Image*, 1, 15-28.
- Stanford, J. N., & McCabe, M. P.(2005). Sociocultural influences on adolescent boys' body image and body change strategies. *Body Image*, 2(2), 105-113.
- Tiggemann, M., & McGill, B.(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23-44.
- Tompson, J. K., Coovert, M. D., Richards, K. J., Johnson, S., & Cattarin, J.(1995).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female adolescents: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221-236.
- Wiseman, M. A., Gray, J. J., Mosimann, J. E., & Ahrens, A. H.(1992). Cultural expectations of thinness in women: An update. *International of Eating Disorders*, 11, 85-89.
- Wittchen, H. U., & Jacobi, F.(2005). Size and burden of mental disorders in Europe - A critical review and appraisal of 27 studies.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15, 357-376.
- Wylie, R. C.(1989). *Measure of Self-concept*. Lincoln, N. 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abing, G., Wenbo, P., & Bowei, L.(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depression and self-regard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Ps Psychological Science*, 29(4), 973-975.
- Zalilah, M. S., Anida, H. A., & Merlin, A.(200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body shapes. *The Medical journal of Malaysia*, 58(5), 743-751.

접수일 : 2009년 08월 31일

심사일 : 2009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04일